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5년 1월 26일
제2037호

주임 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사무실: 703 968 3010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보좌신부: 양종욱 대건 안드레아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팩스: 703 968 3013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 희망의 순례자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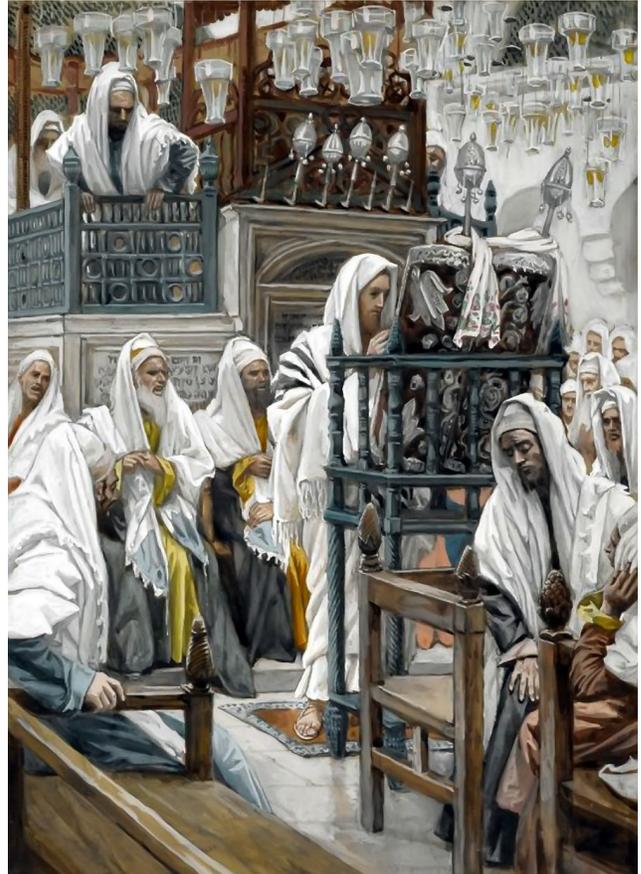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맡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루카 4,18-20)



제임스 티소, <Jesus Unrolls the Book in the Synagogue>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다해)

제 1 독서 느헤 8,2-4 7.5-6.8-10 | 레위인들은 율법서를 설명하면서 읽어 주었다.

화답송 시편 19(18) |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제 2 독서 1코린 12,12-30 <또는 1코린 12,12-14.27> |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음 루카 1,1-4; 4,14-21 |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 1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 2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 3 존귀하신 테오필로스 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4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에 4:14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래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 15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 16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 17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 18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 19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 20 예수님께서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 21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복음 묵상

루카 복음서 서문에 나오는 ‘테오필로스’라는 이름은 상징적인 이름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루카 복음서 저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모든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적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 모두 진실임을 선포하고자 한 것이지요.

사실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실재가 있었지요. 다음으로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한 복음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점차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여러 단편적인 구두 전승을 모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을 깊이 전하기 위해서지요.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 복음서를 읽고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루카 4,21). 이 선언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시요 구세주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표현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이들과 눈먼 이들, 무엇인가에 붙잡혀 묶이고 억압받던 이들이 구원과 해방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많은 이가 주님의 은혜로움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1독서를 보면,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서 하느님의 율법을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율법이 참되다고 고백합니다. 모진 고생을 통하여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오직 구약과 신약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오늘도 겸손과 신뢰의 마음으로 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동희 모세 신부)



하느님의 말씀 주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선언하시며(2019년 9월 30일), 하느님 백성이 성경을 더욱더 경건하고 친숙하게 대하고, 하느님 말씀의 거행과 성찰과 전파를 위하여 이날을 봉헌하며 장엄하게 지내기를 권고하셨다.

○ 하느님의 말씀 주일 묵상

“하느님의 말씀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 프란치스코 교황 -



“여기 예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여러분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현존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는 길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사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취향, 성향, 선호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빚어내고 회심시키며 하나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일치를 이루도록 부르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이를 향하고, 변화하고 움직이도록 재촉하는 하느님 말씀은 침묵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다. 교황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시몬과 안드레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길을 잃고 억눌리고 낙심한 이들을 찾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이 주는 위로, 삶을 변화시키시는 파격적인 하느님을 소리 높여 선포하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이 지닌 역동성입니다. 곧, 하느님 말씀은 아버지 사랑의 ‘그물’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를 하느님 나라라는 배에 올라타게 이끄는 주체할 수 없는 열망에 휩싸인 사도가 되게 합니다. 이는 개종 강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는 것은 하느님 말씀**이지 우리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희년**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의 표징들 (3) 기도

기도하는 방법과 이유는 많지만, 기도의 뿌리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 사랑의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염원이 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기도로 부르시고 각자 성부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자의 영이시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당신 제자들에게 맡겨 주셨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2759-2865 항 참조)에도 주님의 기도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그리스도교 전승도 성모송과 같은 여러 기도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도문들은 하느님께 기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성령께서는 살아 있는 전통인 성전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661 항).

여행 도중에 하는 기도의 순간들은 순례자의 “마음속에”(시편 84[83].6) 하느님께 가는 길들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 길을 따라가며 다양한 경유지를 거치고 휴식도 취하면서 활력을 얻을 수 있다. 그 순례길은 성지들과 순례지들을 비롯하여 영적 의미가 총만한 장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와 나란히 다른 순례자들도 이 같은 길을 지나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실제로, 로마로 가는 길은 많은 성인들이 자주 걸어갔던 길이다.



1 2차 헌금 안내

- 오늘 미사 중에는 라틴 아메리카 교회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2월 2일) 미사 중에 교구 신문(Diocesan Newspaper)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루카회 월례 회의

- 일시 : 1월 26일(일) 오전 11:30 (B-2,3)

3 베드로회 총회

- 일시 : 1월 26일(일) 오후 6시 (친교실)

4 설 합동 위령 미사

- 1월 29일(수)은 설날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 형제자매, 친척, 은인분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시 40분부터 연도를 바치고 가족별로 나오셔서 절을 드리겠습니다. 미사는 7시 30분에 봉헌됩니다.

5 K of C 월례 회의

- 일시 : 2월 2일(일) 오전 9:15 (B-3)

6 구역 봉사자 회의

- 일시 : 2월 2일(일) 오전 11:30 (B-3,4)

7 바오로회 총회

- 일시 : 2월 2일(일) 오후 4시 (친교실)

8 2025년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월 2일(일) 오전 11:20 - 오후 12:30 (A1-2)
- 대상 : 성경학교 신입생
- 문의 : 윤영미 로사리아 (703) 850-2968

9 봉성체

- 일시 : 2월 14일(금)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 598-3316
- 2월 봉성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주 늦추어 실시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3월 봉성체도 한 주 늦추어 하겠습니다.

10 유아세례

- 일시 : 2월 15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4년 건진반 신청

- 대상 : 첫 영성체 받은 7학년 이상
- 일정 : 3월 12일(수) 오후 7시
- 등록 기간 : 3월 2일(일)까지 (오후 2시 미사 후 교무실)
- 문의 : 임형준 교감 (703) 624-8196

12 성당 주차장 접촉 사고 안내

- 성당 주차장에서 잦은 주차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만 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에 메모**를 남겨 주시고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난 다음 아무 조치 없이 그냥 가시는 것은 뺑소니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자신과 남을 외면해 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13 세계 결혼 주간 안내

- 결혼 주간 일시 : 2025년 2월 7일(금) - 14일(금)
- 주제 : 결혼-희망의 원천, 썬신의 봄 (변치 않을 사랑을 추구하라!)
- 알링턴 교구에서는 세계 결혼 주간을 맞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성사성을 잘 유지하고 관계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1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애난데일의 St. Ambrose 에서 부부를 위한 워크숍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결혼의 날을 맞아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가정의 소중함과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대화와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14 주님 봉헌 축일 초 축복식

- 일시 : 2월 2일(일) 오전 10시 미사, 오후 2시 미사
- 주님 봉헌 축일을 맞아 1년 동안 미사 때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오전 10시 미사와 오후 2시 미사 때 초 축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지

축성생활의 날 - 기도해 주세요

2월 2일(일)은 주님 봉헌 축일이며 축성생활의 날

축성생활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명하시며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으며 자신을 봉헌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선택한 이들이 축성생활자입니다. 축성생활자의 범주를 좁은 의미에서 보면 수도자이고, 넓은 의미로는 모든 성직자와 동정녀, 은수자, 봉헌자, 재속 회원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첫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교중미사 예물봉헌

01/26 이번 주	라우던 1구역
02/02 다음 주	라우던 2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1월 19일(연중 제2주일)

봉헌금	\$ 6,155.00
교무금	\$ 5,670.00
교무금(신용카드)	\$ 2,640.00
감사 헌금	\$ 1,010.00
2차 헌금	\$ 2,972.00
온라인 봉헌	\$ 2,220.00
합계	\$ 20,667.00



날씨에 관한 본당(알링턴 교구)지침

- ① 질병이나 약천후(홍수, 허리케인, 폭설)로 인하여 미사 참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미사 참여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교회는 대송(공소예절, 기도, 성서 읽기, 선행)을 바칠 것을 권고한다. (교구 웹사이트 참조)
- ② 우리 본당은 약천후와 관련해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지침을 따르며, 이에 따라 건물 사용 및 행사(활동)가 취소된다. 하상관 체육관 사용도 이에 따른다. (www.fcps.edu 참조)
- ③ 본당의 미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거행되며 약천후로 인해 미사 참여 의무는 없지만 부득이 미사 참여를 할 경우에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 ④ 약천후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날은 굽이 높은 신발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절대로 신지 않는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5년 1월 30일(목) 오후 5:00 - 6:00
 2025년 1월 31일(금) 저녁 8:00 - 9:00
 2025년 2월 2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둘째특강: “내 인생의 충고해 2”
- 가경용 신부 (미리내 천주성삼성성지수도회)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tr> <th>화</th> <th>금</th> <th>수</th>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루카 4,21)